

## IFLA 2006 서울대회 공동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72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Seoul, Korea, 2006(이하 ‘IFLA 2006 서울대회’라 한다.) ‘IFLA 2006 서울대회’ 준비를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2001년 5월 구성된 ‘IFLA 2006 서울대회 공동준비위’(공동준비위원장 :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장, 임병수 국립중앙도서관장 이하 ‘준비위’)의 지난 1년 6개월 간의 준비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준비위 2002년도 제1차 회의 (2월 26일)  
워킹그룹 구성 및 업무 분장
- 준비위 2002년도 제2차 회의 (5월 1일)  
로고 제작방안 논의, 장소 예약 절차 검토, 예산안 확정
- 준비위 2002년도 제3차 회의(6월 5일)  
로고 제작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기로 결정
- 준비위 2002년도 제4차 회의 (8월 9일)  
IFLA 본부에 제안할 로고 도안 3종 채택
- 준비위 2003년도 제1차 회의 (4월 16일)
  - IFLA 본부, 서울대회 로고 확정
  - IFLA본부, 연차대회 명칭 변경(IFLA2006서울대회 → WLIC:IFLA2006서울대회)
  - IFLA 45개 분과(Section)위원장(Chair)에 공한 발송
  - 준비위 위원 위촉 : <변경>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관리부장 : 이경구 → 권재윤,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 조원호 → 이경구  
<추가> 조원호 전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 대회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 : IFLA 사무국장 앞으로 변경 철회 요청 공한 발송
  - 2003베를린 대회 파견 준비위원 결정
- 준비위 2003년도 제2차 회의 (7월 1일)
  - 준비위 위원 위촉 : <변경>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 신현택 → 임병수,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장 : 이시우 → 심영섭
  - 대회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 : IFLA 사무국장 앞으로 변경 철회 재요청 공한 발송
  - 2003베를린대회 파견 준비위원 추가 선정

■ 준비위 2003년도 제3차 회의 (7월 21일)

대회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 : IFLA 회장 및 이사에게 변경 철회 요청 공한 발송, 일본도서관협회 및 중국도서관협회에 협조 요청 공한 발송, 협상단(한상완, 이용남, 정동열 위원) 파견

상기 준비위 회의 일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IFLA 2006 서울대회'와 관련 가장 중요한 현안은 IFLA 본부의 대회 운영 방식 변경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변경의 주요 골자는 대회 운영의 주도권을 개최국 조직위원회에서 IFLA 본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본부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사무국은 최근 매년 8월 개최되는 WLIC의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해당 개최국 조직위원회와의 변경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회 운영의 주체가 IFLA 본부와 개최국 조직위원회(NOC, 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두 곳으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2005년 대회(오슬로)부터는 IFLA 본부와 IFLA 본부가 지정한 PCO(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zer, 국제대회기획대행업체), 개최국 자문위원회(NAC, National Advisory Committee) 세 곳이 역할을 분담하여 역대 개최국 조직위원회가 맡아 왔던 대회 사무국 운영, 종합 일정 및 예산 수립, 각 중 계약, 참가등록금을 포함하는 각 중 재정의 집행, 홍보, 유인물 제작 등을 IFLA 본부가 지정한 PCO에게로 맡기겠다는 것이다.

2006년 서울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IFLA 2006 서울대회 공동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장, 임병수 국립중앙도서관장, 이하 준비위)'는 개정 작업 중인 대회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개최국 조직위원회의 대회 예산·재정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현지성(도서관견학, 관광, 자원봉사 등), 지역적 지원업무만 부과하는 등 개최국의 역할과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IFLA 본부의 일방적 조치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준비위는 대회 운영 방식 변경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수 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IFLA 본부에 이번 개정 매뉴얼의 내용이 서울대회 유치 신청 당시(1998년)와 현저하게 다른 점, 대회 개최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방식을 변경하는 점, 원활한 국제 대회 개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인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점, 외국 POC의 국내 활동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본부의 일방적 대회 운영 방식 변경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는 공식 서한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준비위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2003년 대회에서 IFLA 본부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양자 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향후 IFLA 이사회에서의 재논의 촉구, 국내 도서관계 및 정부와의 의견 조율, 한·중·일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도서관계의 여론 환기 등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 시키기로 하였다.